

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2021. 6. 10.(금) 11:00	배포일시	2021. 6. 10.(목) 10:30
담당과장	예산실 문화예산과 남동오 (044-215-7270)	담당자	신경아 사무관 ska0511@korea.kr

공연예술계 청년인력 간담회 및 현장방문 실시

-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'21년 6월 10일(목) 10시, 예술가의 집(서울 대학로)에서 「공연예술계 청년인력 간담회 및 현장방문」을 실시
-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의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, 공연 시장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사자·예술 단체·공공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

< 공연예술계 청년인력 간담회 개요 >

- 일시·장소: '21. 6. 10.(목) 10:00,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(서울 대학로)
- 참석: (정부) 기획재정부 제2차관, 문화예산과장,
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, 예술정책관
(민간) 황일호(극단 B급로타리), 김진호(빛소리친구들)
김재완(디토오케스트라 대표), 정경미(강령탈춤 연구회)
(전문가)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차민경 부연구위원
(공공) 예술위원회 정창호 부장, 임수연 팀장

※ 간담회 종료후 공연장 '플러스씨어터' 현장방문

□ 오늘 간담회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

-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중단 등 공연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, 정부의 2차례 추경을 통한 긴급 일자리 7,100명 제공* 등으로 공연계 폐업 및 실업 사태 방지에 기여하였으며,

*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('20년 추경 3,000명, 281억원, '21년 추경 3,500명, 336억원),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('21년 추경 600명, 68억원)

** 공연시설 및 단체 종사자 수 6.4만명의 10%를 상회하는 수준(7,100명)

- 이러한 정부의 노력 등에 힘입어 공연예술계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 대비 86%(공연건수는 80%) 수준을 회복하는 등 공연예술 활동의 긍정적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

* 매출액(월평균, 억원) : ('19.下)310, ('20)142, ('21.3)208, ('21.4)230, ('21.5)265
공연건수(월평균, 건) : ('19.下)1,384, ('20)549, ('21.3)732, ('21.4)889, ('21.5)1,102

- 정부는 공연예술산업이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고 노동집약적 이어서 고용창출 잠재력*이 높은 분야임을 감안, 향후 상시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인력지원사업에 역점을 둘 것이라 밝힘

* 취업유발계수('18년) : 예술·스포츠·여가·서비스 14.29, 제조업 6.19, 서비스업 12.82

□ 공연예술계 '수요 창출 → 양질의 일자리 창출'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다음의 4가지 포인트에 예산편성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힘

- ① (공연예술 시장 확대) 비대면 산업 전환의 최근 트렌드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공연예술 분야도 디지털화를 통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* 활성화 지원

* 미국 온라인 공연 서비스인 '메트로폴리탄 오페라'의 연간 매출액 218억원
유럽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오페라비전은 5만 여명의 구독자 보유

- 국립공연장 공연 영상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*하고
민간단체에도 확대·적용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
간접 지원하고 예술단체의 자생능력 강화

* 공공부문 공연 영상화 사업('21년 신규사업, 45억원) : 실감형 기술 결합
공연 영상 제작, 다중시점·참여형 관람 등 차별화된 관람 경험을 제공

② (해외시장 진출) 예술한류의 킬러 콘텐츠인 K-뮤지컬의 해외 투자유치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수익 창출 기회 확보

- 금년 처음 개최되는 'K-뮤지컬 투자 박람회*'를 통해 국내
창작 뮤지컬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공연 및 투자유치
전 과정 멘토링 지원

* (참가규모) 전세계 뮤지컬 및 투자 관계자 800여명, 국내외 제작사 100여개
(주요내용) 뮤지컬 제작단계별 작품 시연 및 투자제안, 뮤지컬 투자 강연 및
투자 상담 등 지원

③ (공공일자리 내실화) 현장 실무능력 배양을 통한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에 포커스를 두어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제공

- 국공립기관 및 민간예술단체에서의 연수기회를 제공*함
으로써 '실무직업능력 배양 → 취업 경쟁력 제고' 지원

*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: 예술전공 졸업생들의 현장 실무능력 배양
및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공연예술단체에 연수단원 배치, 채용설명회 및
상담 지원

- 또한,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실연(performer)
뿐만 아니라 무대·마케팅·IT기술 스텝 등을 대상으로
특성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설계,
내년 예산부터 본격 지원

④ (신진창작자 창작기반 강화) 자생력이 약한 예술현장에서
예술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과 견인을 위해 정부가
창작활동을 적극 지원

- 특히, 새로운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연예술과 신기술
(AR·VR·메타버스 등)을 결합한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
새로운 예술활동을 시도하는 청년들을 적극 발굴·양성

*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창·제작 35건 지원('21년 신규, 48억원)